

20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5. 3. 13. (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유 산 위 원 회**

## 1. 「양주 회암사지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 가. 제안사항

「양주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양주시)에서 <양주 회암사지 유적(Archaeological Remains at the Hoamsa Temple Site in Yangju City)>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332호) 제9조

-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유산 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 다. 등재추진 경과

- 2018. 4. 26. : 잠정목록 선정 심의 “부결”
- 2020. 1. 28. : 잠정목록 선정 심의 “부결”
- 2022. 1. 13. : 잠정목록 선정 심의 “원안 가결”

- 유산의 성격, 명칭, 구역범위(①사역범위, 지형, 경관 고려 ②부도군과 사찰(유적) 연결여부 검토), 비교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권고함
-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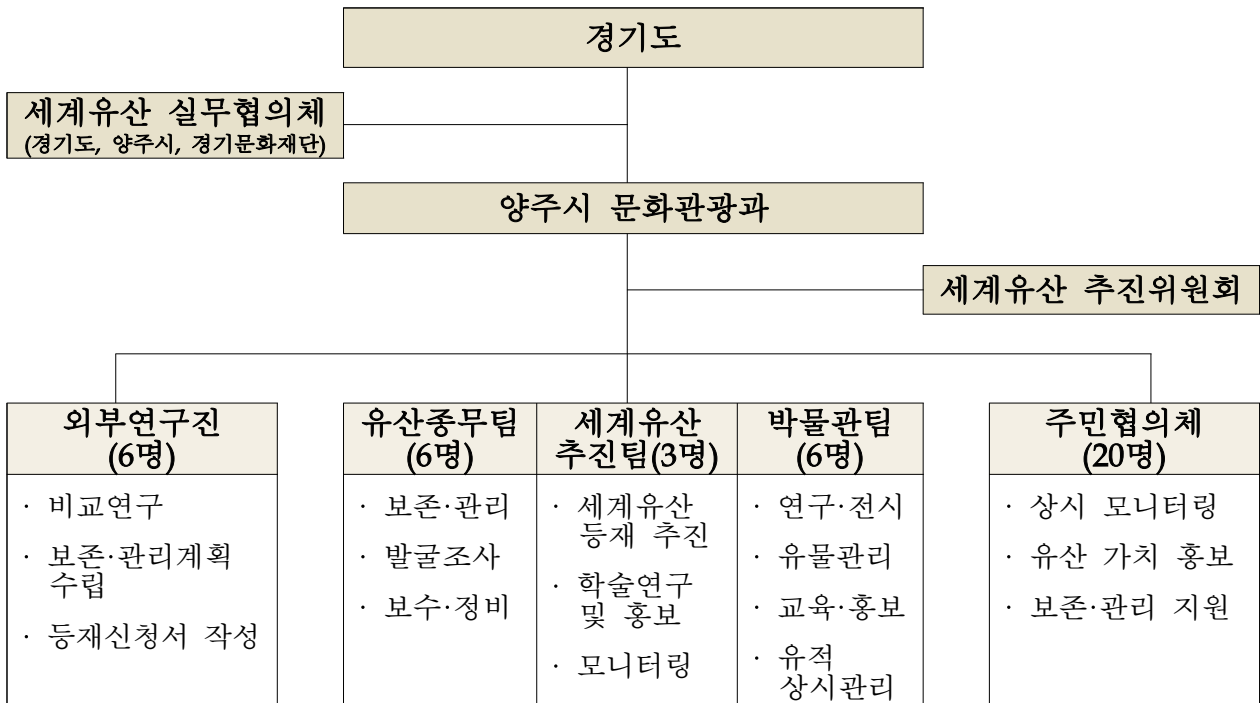
라.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우선등재목록 신청서(안)주요 내용(\* 경기도 양주시 작성)

1. 등재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 등재 추진체계



○ 등재 추진 행정조직

-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5명):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업무 지원
- 양주시 문화관광과(3개 팀)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업무 담당
  - 세계유산추진팀(3명) 세계유산 등재, 학술연구 및 홍보, 모니터링 등 담당
  - 유산종무팀(6명): 회암사지 보존·관리, 발굴·보수·정비 담당
  - 박물관팀(6명): 연구, 전시, 유물 관리, 교육, 홍보, 유적 상시 관리 담당
- ※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경기도-양주시 업무협약 체결('22.12.20.)
- 향후, 등재 추진 단계에 따라 세계유산추진단으로 조직 개편 예정

○ 신청유산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 세계유산 추진위원회(10명) :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
- 세계유산 실무협의체(6명) : 회암사지 세계유산추진단 조직구성, 예산 편성, 단계별 추진사항, 홍보 등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문화재단 실무담당자로 구성
- 세계유산 주민협의체(20명) : 상시 모니터링, 유산 가치 홍보, 보존·관리 지원 활동 등을 위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

○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구분	소속 및 분야	인원
지자체 등재 신청 전담 연구원	양주시 문화관광과	3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진	세계유산, 건축사, 불교사, 고고학, 보존·관리·활용 등	6
계		9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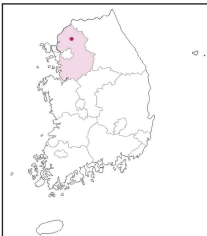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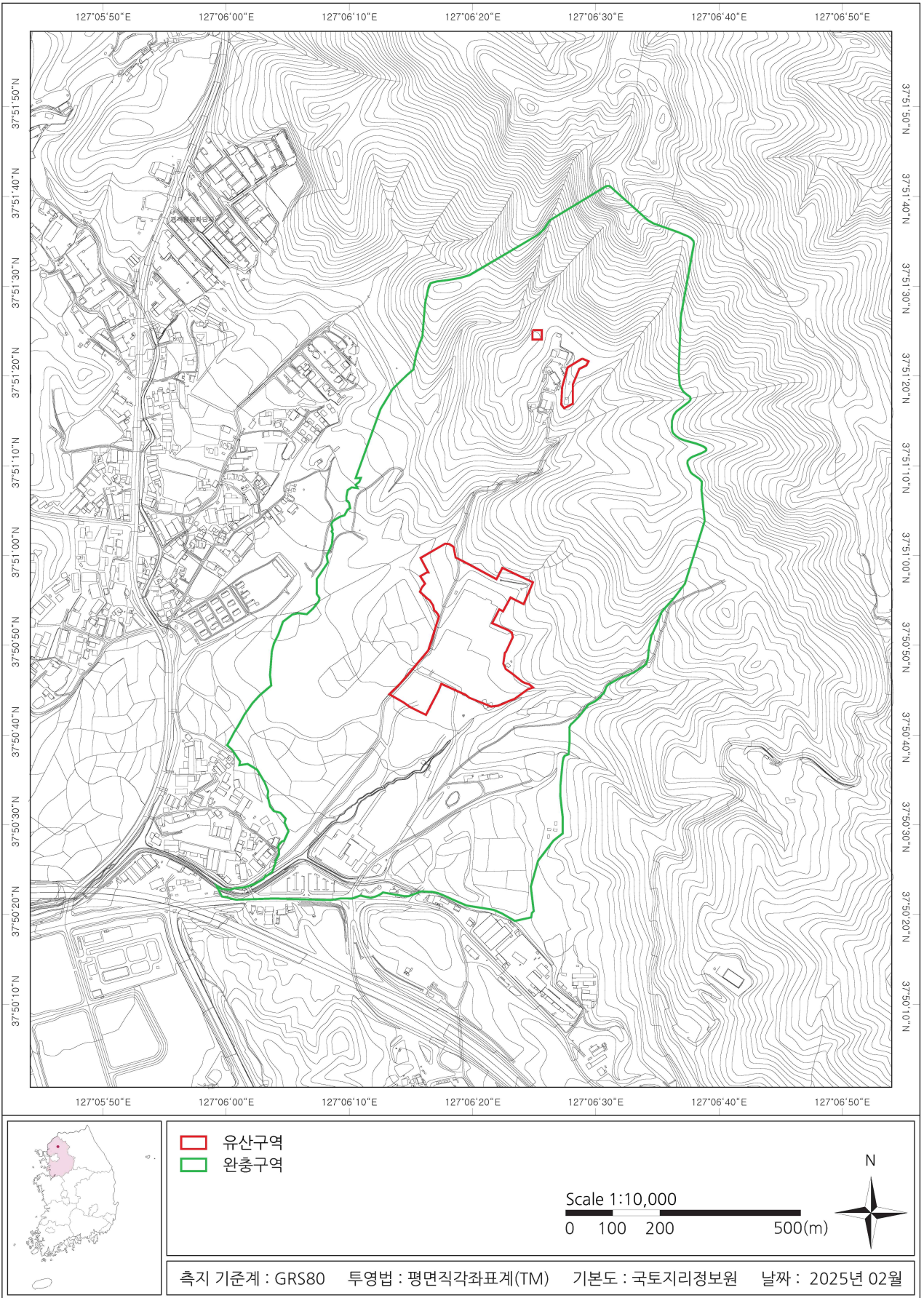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 유산구역 : 문화유산 보호구역(선종사원의 구성요소 모두 포함)
- 완충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유산구역과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 포함)

표 1.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번호	구성요소의 명칭	중심점의 지리좌표	유산구역 면적	완충구역 면적	비고
1	중심 가람의 고고학 유적지	N 37°50'43.00" E 127°06'20.00"	5.75(ha)	88.71(ha)	
2	고승들의 기념물1	N 37°51'00.00" E 127°06'29.00"	0.23(ha)		
3	고승들의 기념물2	N 37°51'03.00" E 127°06'26.00"	0.04(ha)		
전체면적(총계)			6.02(ha)	88.71(ha)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지도>



- 유산구역
- 완충구역

Scale 1:10,000

0 100 200 500(m)

측지 기준계 : GRS80 투영법 : 평면직각좌표계(TM) 기본도 : 국토지리정보원 날짜 : 2025년 02월

###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 1) 등재기준

##### ○ 신청 등재기준 : 기준(ii), 기준(iii)

- 기준(ii) :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의 종교 문화 교류를 통해 도입된 선종사원의 건축 배치와 구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고고학 유적지와 기념물군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선종의 종교적 공유가 선승에 의한 인적 교류와 선풍, 선종 서적 등 물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건축을 포함한 종교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로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선종사원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와 공간 구성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고고유적이다.

#### 2) 유산에 대한 설명

- 제시한 유산 명칭 : 양주 회암사지 유적
- 유산의 구성요소 및 속성

표 2. 신청유산의 구성요소

연번	유산 구성	문화유산 지정명칭(지정종별)	지정일
1	중심 가람의 고고학 유적지	양주 회암사지 (사적)	1964.06.10.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2021.06.24.
2	고승들의 기념물군 1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1974.09.26.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1974.09.26.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1963.09.02.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보물)	1963.09.02.
		양주 회암사 지공선사 부도비 (경기도 문화유산자료)	2004.11.29.
		무학대사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1974.09.26.
3	고승들의 기념물군 2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귀부) (보물)	1963.09.02.

표 3. 신청유산의 속성

속성 (Attributes)	가치 (Values)	등재기준 (Criteria)
가람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선종 사원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가 고려에서 일부 변용되어 적용된 모습을 온전하게 간직</li> </ul>	<p><b>등재기준 (i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시아의 종교 문화 교류를 통해 도입된 선종 사원의 건축 배치와 구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li> <li>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선종의 종교적 공유가 선승에 의한 인적 교류와 선풍, 선종 서적 등 물질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건축을 포함한 종교 문화적 교류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줌</li> <li>14세기 동아시아를 무대로 전개된 종교 교류 속에서, 고려가 중국의 송대(960~1277)에 확립되어 원대(1206~1368)로 이어진 선종사원의 가람 배치와 건물 구성, 그리고 고승을 존숭하고 기념하는 방식을 수용해, 고려의 방식으로 구현한 선종사원의 모습이 잘 남아있음</li> </ul>
건축물의 기초 유구와 출토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세기 후반 중창된 이래 가람 전체 유구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청규에 기반한 선종가람이 실제 운영된 방식을 알 수 있으며 문헌을 통해 입증됨</li> <li>14세기 중창 이전부터 사원이 유지되는 동안 축적된 다양한 유물들이 사원의 위상과 교류양상, 왕실과의 관계를 증명</li> </ul>	<p><b>등재기준 (ii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질 증거로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선종사원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와 공간 구성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고고유적</li> <li>14세기 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하던 선종의 사원 제도에 따라 승려들의 수행과 생활이 하나로 결합되는 수행 공동체 생활에 최적화된 형태로 조성</li> <li>신청유산의 배치는 사원 내에서 승려들이 수행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청규를 실천하는 공간을 구현한 것</li> <li>신청유산에 남아있는 14~16세기의 건물터와 고승들의 기념물은 고려의 선종이 조선(1392~1910)으로 이어진 약 200여 년간의 전승과 발전을 확연히 보여주며, 선종사원의 공간 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함</li> </ul>
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고려와 원 사이의 선종 교류, 회암사와 조선 왕실의 관계를 증명</li> </ul>	

## ○ 유산개요

- 양주 회암사지는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종의 가람 구성과 배치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고 유적이다. 천보산 남쪽에 위치하며 예불과 수행, 그리고 사원 운영을 위해 조성된 중심 가람의 고고학 유적지와 국제적 교류를 통해 14세기 회암사의 중흥을 이룬 고승들의 승탑과 비석이 있는 기념물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 회암사는 고려 말 14세기 후반 중국의 원나라에서 선을 배우고 선종사원의 운영과 가람 구성 체제를 익혀 돌아온 선승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에 의해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전형적인 형태로 중창되었다. 중창 이후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고 유교가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불교 사원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회암사는 왕실 불교를 대표하는 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다가 16세기 말 전란으로 폐사되었다. 폐사 이후 그 터는 왕실의 사원 유적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 근래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회암사지 유적은 조선 전기에 왕실의 지원을 받아 몇 차례 수리가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고려 말 가람 구성과 배치의 틀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확립된 선종사원의 가람제도를 따르면서 한국의 기후 조건과 불교 사원 건축의 전통을 적절히 반영하여 가람을 조성한 점도 확인되었다.
- 신청유산인 양주 회암사지 유적에서 확인된 가람배치, 건물 구성과 형태, 고승들의 기념물 등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불교 선종의 교류를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로서, 당시 선종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이 유적으로 잘 남아있는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유산이다.

### 3) 보존 관리 계획

#### ○ 법적제도

항목	관련법규
중앙정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 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경관법, 산림 보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보호관리체계

- 신청유산의 보존 관리 및 재정 지원은 국가유산청이 총괄하며 신청유산의 소재지인 경기도 양주시는 관리단체로서 보존 관리 실무 담당
- 추진근거 :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2021)

표 4. 신청유산의 보호관리체계

항목		내용
경기도 양주시 문화관광과	유산중무팀	회암사지 보존·관리, 발굴조사, 보수·정비
	세계유산추진팀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보존·관리·활용 계획 수립, 모니터링, 조례 제정
	박물관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전시, 연구, 유물 수집 및 관리, 교육, 홍보 등), 회암사지 보호구역 상시관리

[기존 등재신청 비교 주요 수정 사항]

○ 유산에 대한 설명

- 신청유산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유산 설명
- 선종의 성립의 의미와 회암사지와 의 관계에 대한 설명 추가

구분	내용
<p>잠정목록 신청서 (‘22년)</p>	<p>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 만개했던 불교 선종의 동아시아적 유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고학적 증거이다. 회암사지 유적은 승려들의 수행 생활을 위해 조성된 주요 건물터가 배치된 중심사역과 북쪽 산록에 조성되어 있는 회암사를 중흥으로 이끌었던 고승들의 기념물인 부도, 석등, 비석이 위치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구역에서 확인된 고고유적과 유물은 상호보완적으로 회암사지가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춘 유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p>
<p>우선등재목록 신청서 (‘2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성 :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에 선종이 유행하던 14세기에 고려(918~1392)의 선승이 중국으로부터 선종사원의 수행과 운영방식, 그리고 가람 구성과 배치 방식을 도입해, 고려의 사원과 건축 기술의 토대 위에 구현한 선종사원의 고고 유적이다. 이곳에는 당시 선종사원의 독자적인 수행과 운영방식이 반영된 가람배치, 건물 구성과 형태, 그리고 고승들의 기념물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의 동아시아적 유행과 고려의 수용 방식을 잘 보여주는 탁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li> <li>• 선종 : 선종은 동아시아에서 성립한 종파 중 하나로 선 수행이 동아시아에 들어와서는 수행을 중지로 하는 종파로 성립된 것인데, 당대 종파로서의 선종의 성립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인도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사회적·경제적·사상적 기반을 가진 중국에 전래되어 동아시아적 전통에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중략) 한국은 9세기 당으로 유학을 갔던 신라 승려들이 선종으로 개종하여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종이 전래되었다. (중략) 선종사원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개산조나 중창조를 비롯한 여러 고승들의 승탑과 비석을 세우는 것은 선종에서 중시하는 전등의 확인이었다. 선종은 교종(특히 화엄)과 양립하며 고려 불교의 중추를 형성하여 한국 중세불교를 이끌어 나갔다. (중략) 신청유산은 고려와 중국 간에 승려 왕래를 통한 활발한 불교 교류가 재개된 14세기에 나옹혜근이 원나라 유학에서 습득한 선종사원의 예불, 수행, 생활, 운영, 건물 구성과 배치를 도입해 고려 건축의 토대 위에 구현한 선종사원 유적이다.</li> </ul>

##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기술

구분	내용
잠정목록 신청서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재기준 (iii)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로 불교 선종의 수행 전통, 사원의 공간 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li> </ul>
우선등재목록 신청서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재기준 (ii) 동아시아의 종교 문화 교류를 통해 도입된 선종사원의 건축 배치와 구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li> <li>• 등재기준 (iii)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적 증거로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선종 사원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와 공간 구성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고고유적</li> </ul>

## ○ 비교분석

구분	내용
잠정목록 신청서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사유산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18년 등재), 폐사지 중 고려 선종사원 11개소</li> </ul> </li> <li>• 국외 유사유산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세계유산 16개, 일본 세계유산 8개(잠정목록 1개), 중국·일본 선종사원</li> </ul> </li> </ul>
우선등재목록 신청서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사유산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유산이 포함된 세계유산목록(잠정목록 포함) :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등 7개소(지역, 창건시기, 종파, 현 상태, 특징 등 회암사지와 비교분석)</li> <li>- 한국 선종사원 : 사료로 선종사원의 공간구성 확인 가능한 고려시대 선종사원 4개소, 발굴·시굴 조사로 선종사원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지 및 현존사원 29개소</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신청유산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선종사원의 특징적인 가람배치, 삼문-불전-법당-방장이 이루는 중심축의 구성, 가람 서측의 수행 공간 구성, 그리고 고원을 핵심으로 하는 가람 동측의 사무 공간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종사원임</p> <p>→ 수행 생활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중료가 불전 동쪽에 배치되어 고려 선종 사원의 특징을 이루었다. 불전의 동서 양쪽에 수행의 핵심 시설인 승당과 중료를 배치하는 방식은 이후 조선시대 선종사원의 배치로 계승되었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유사유산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사원이 포함된 동아시아 세계유산목록 : 한국 6개소, 일본 5개소, 중국 2개소, 베트남 1개소</li> <li>- 중국·일본 선종사원 : 중국 남송~원대 오산지상, 오산십찰과 감찰 등 17개소, 일본 가마쿠라~무로마치시대 가마쿠라 및 교토 오산 사원 등 17개소</li> <li>※ 개산 배경, 존속 시기, 입지 및 배치, 청규를 반영한 선종사원 공간구성 요소 등 회암사지와 비교</li> </ul> </li> </ul>

	<p>- 중국·일본 선종사원 중 회암사지와 속성 비교 : 중국 선종사원 3개소, 일본 선종사원 5개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14세기 동아시아 선종사원의 가람배치 : 중국과 일본에는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선종사원의 특징적인 가람배치를 유지하고 있는 선종사원이나 유적은 확인된 것이 없음</p> <p>→ 청규에 따른 건물(유구) 구성과 형태 : 현존하는 중국과 일본의 선종사원 들에는 청규에 따른 건물의 요소가 남아 있으나 후대에 새로 지어졌으며, 14세기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고 변화되었음</p> <p>→ 고승들의 기념물 : 중국의 현존하는 선종사원에는 개산조나 중홍조의 승탑과 탑비가 본래의 위치에 남아있는 사례가 거의 없음. 일본의 경우 근세를 지나면서 본사 가람 주위에 발달해간 탑두 안에 개산조나 중홍조의 승탑을 건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탑두는 독립된 사원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본사 가람과의 연계성은 약화되었고, 탑비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p> </div>
--	--

## 바.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신청유산의 설명]

- 신청 유산의 설명은 대체로 적절함. 해당 유산 내에서 보이는 돌을 다루는 솜씨와 같은 미학적 요소 등도 강조될 필요 있음

### [등재기준 서술]

- 등재 기준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적절하며, 해당 유산이 고려로 유입되며 완성된 한국적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임을 강조하는 것 필요함

### [완전성과 진정성]

- 1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회암사지 가람 중심부 핵심 시설의 구성·배치가 고려 말 중창 당시와 큰 변화가 없고, 현재 정비된 유적지 역시 그러함을 분명히 서술해야 함
- 신청 유산을 구성하는 회암사지와 고승들의 기념물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서술하고, 해당 문화유산이 14세기 동아시아 선종 사원이 고려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보다 완전해졌음을 강조하여 문화유산의 가치 드러낼 필요 있음

### [유산구역, 완충구역 설정 타당성]

- 현재 유산구역은 유산의 기능적 측면이 아닌 발굴조사 시 유구 발견구역으로 설정되어, 유산구역 설정을 보완하거나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함

### [비교연구]

- 국내외 비교연구 보완과 비교를 위한 도면이나 사진 자료의 화질 개선이 필요함

## [보호관리계획]

- 현재 유산구역은 국가지정유산구역과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이 섞여있으므로, 유산보호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국가지정유산구역으로 통합되어 관리 필요함

## [기 타]

-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산 명칭 필요. '양주'라는 지역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아시아 선종사원 혹은 선종사찰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 있음.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문화유산의 가치 서술을 비롯한 보고서의 기본 형식과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음. 다만 유적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과 관련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고고유적으로서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디지털을 이용한 현장 관람 체계 부분에 대한 강조 필요. 발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관람체계 및 유산에 인접한 박물관의 유용성을 설명하여 현장박물관 강조할 것

## 사. 소관부서 검토 의견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등재신청유산 경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해 보임.
- 그간 추진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산 신청서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된 예비평가 제도의 기능과 절차적 기한을 고려하여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단계에서 신청유산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아. 의결사항

### ○ 원안가결

- 유산명칭, 유산완충 구역 설정 및 비교연구를 보완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후 예비평가신청서 초안을 5월 위원회에서 보고할 것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2.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보호관리계획 검토

### 가. 검토사항

세계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 관리계획의 갱신을 위해 수립한 경주역사유적지구 보호·관리 및 활용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검토내용

#### 1) 계획의 배경 및 목표

- 2000년 등재 이후 유산에 적용되는 법적체계 변화 등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세계유산 관리의 필요성 대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10항 발취>

효과적인 관리체계는 신청유산의 유형, 특징과 여구, 그리고 그 문화적·자연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체계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과 가용자원, 그 밖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리체계에는 전통적인 관행과 기존의 도시 또는 지역 계획, 그리고 다른 공식적·비공식적 계획 조절 매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 2) 수립주체 및 주요내용

- 수립주체: 경주시
  - \* 신라왕경추진단,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전문가문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협의
- 주요내용
  - 등재 당시 보호관리계획 검토, 해당 유산의 OUV로부터 가치·속성 정리, 유산 관련 계획 현황 등 분석, 국내외적 맥락분석을 통한 보호관리계획 대원칙 정립, 실행계획 등 기술

#### 3) 주요 실행계획

- 지속가능한 유산 보호관리체계 구축의 비전, 6가지 목표(거버넌스 체계 구축, 유산의 보존관리, 환경 및 기후변화, 관광밀도 관리 및 활용, 교통환경 정비, 교육 및 주민참여), 18개 전략 및 31개 사업 제시

#### 4) 향후계획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보고: '25.4월

### 다. 의결사항

#### ○ 보류

- 보호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세부내용에 대하여 추가 검토 필요
- 출석 8명 / 부결 2명, 보류 6명

### 3. 2025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소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추진한 2025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을 부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 적 : 방대한 양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내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문적·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심의사항 : 사업계획 내용 중 다음 사항
  - 세계유산 위협요소
  - 세계유산의 현상 변경 사항
  - 유네스코 보고사항
  - 그 밖에 간사가 주요내용으로 판단하는 사항
- 개최시기 : 본 위원회에서 일정 조정
- 구 성 : 4명 이내
- 시 행 일 : 소위원회 구성·운영 확정 후

#### 라. 향후계획

- ('25.3~4월) 소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업계획 검토
- ('25.4~5월) 2024년 사업계획 종합 통보(청→관리주체) 및 홈페이지 등 공고

## 마.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 바. 의결사항

### ○ 원안가결

- 소위원회 구성(장호수, 조재모, 홍석환 위원)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